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주현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매달 첫째 주일은 온가족 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4. 4월 5일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세례 교육이 3월 첫주부터 4 주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김배형 / 설교번역: 강지연
- 2월 안내 및 봉사: 주나 목장

*향후 교회 행사 (Upcoming Event)

- 설날 식탁교제(파트럭) : 2월 15일 주일 예배 후
- 사순절 시작 : 2월 18일 재의 수요일

*성서일과 Lectionary (제 5주)

미 6:1-8, 시 15, 4-9, 고전 1:18-31, 마 5:1-12

교회세운날 2017.6.11

26-05

1월 25일 (주현절 후 다섯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사 60:1-3 인도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 기도 양하나
-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같이
- 성경봉독 에베소서 2장 10절 인도자
- 설교 이처럼 사소한 것들 김경헌 목사
- 성찬식 다같이
- 봉헌찬송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4절) 다같이
- 봉헌기도 인도자
- 교회소식 인도자
- *파송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다같이
- *축도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서류미비자들

올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유독 올해는 미네소타 곳곳에 얼음(ICE)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네소타 주민들의 몸과 마음은 더욱 움츠려드나 봅니다. 어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따뜻한 봄날이 이곳에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맹추위에도 거리에 나와 미네소타를 잊지 말라고 호소하는 시민들의 외침이 짝하게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네 마음에도 여러 혼란스러운 감정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추방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 추방 당하는 이민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한 순간에 집과 교회와 친구들과 정든 땅을 떠나야 하는 마음,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서류미비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민자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Undocument Immigrants들에게 Illegal Immigrants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들을 단죄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에 Undocumented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속사정 하나 하나까지 신경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저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Undocumented Immigrants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그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일이었습니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 해를 끼치기 위해 몰래 잠입해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 그 모든 사정들은 고향에서 어려운 형편에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딸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며 이주 노동자로 지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엔 너무나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0-4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인들 중에서도 서류미비자로 살아올 수 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우리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미국행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민자들의 현실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곳에서 불법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저도 한 때 어떤 나라의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바라보진 않으시잖아요? 조금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Undocumented Immigrants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꿨으면 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또한 귀하고 소중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듯합니다. 미국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미네소타주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요즘들어 더 심란합니다. 지난 주 수요기도회의 성서일과 말씀이 위로로 주더군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이사야 9:2)”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땅 위에 주님이 임하시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